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9. 11.(월)

## <재외동포청-반크, 대한민국 바로 알리는 공공외교 앞장선다>

동포 차세대 자긍심 고취·한민족 정체성 강화위해  
업무협약

재외동포와 함께 한국 발전상 소개 · 국내 인식개선 등 추진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한국의 발전상과 역사, 문화 등을 재외 동포를 비롯한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 이하 반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 반크(VANK :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는 세계 속 한국 바로 알리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 네트워크 단체

- 이번 업무 협약은 해외에서 나고 자라 거주국에 동화되고 있는 차세대 동포들에게 뿌리인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국가라는 사실을 알려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상생발전(동반성장)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함께 인식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 무엇보다도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거주국에서의 지위를 향상하고 주류사회에 진출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의 발전상 등을 재외동포 거주국에도 널리 알리고, 재외동포들에 대한 국내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각국에 거주하는 차세대 재외동포의 적극적인 동참을 끌어내는데도 함께하기로 했다.

□ 양 기관은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콘텐츠 개발) 한국을 쉽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정치·경제 발전상과 역사·문화에 대한 콘텐츠 개발 및 캠페인 사이트 구축
- (청소년 대상 정체성 교육) 재외동포 청소년 및 대학생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 등을 주제로 한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 (한글학교 교사 대상 정체성 교육) 차세대 정체성 함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외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한국 정치·경제 발전상 등 교육
- (외국 교과서에 한국 발전상 수록 지원)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주류사회로 진출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포 사회와 협력하여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거주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등 동포사회의 공공외교 지원
-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 활동)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이해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 사회의 역사,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기여, 동포 거주국과 모국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 및 앞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국내에 널리 전파

□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차세대들의 주류사회 진출에 지원이라는 정부 재외동포정책의 2개 핵심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소재” 라고 하면서,

○ “한국 발전상에 대한 외국 교과서 수록은 현지인에게는 한국을 바로 알리고 동포 차세대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네덜란드와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성과를 거둬 증명된 일”이라며 “오랜 기간 민간 외교사절단으로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려온 반크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및 재외동포사회의 역량을 결집한다면 더 많은 국가로 확대할 수 있는 업”이라고 강조했다.

□ 반크의 박기태 단장은 새로 출범한 재외동포청과 중요한 공공외교 사업의 파트너가 되어 기쁘다면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동포청과 함께 한다면 전세계 차세대 동포들이 동참하는 데에 있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민간, 지자체, 재외동포사회와 협력하여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한인 정체성 함양,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재외동포청과 반크 간의 업무협약서 서명식 사진(별도첨부). 끝.

담당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책임자	과장 최윤선 (032)585-3154
		담당자	서기관 오현영 (032)585-3155